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

- 제 목 : 써 보니 알겠네, 유니버설디자인… 사람중심IL센터 '찐 편한 디자인?' 캠페인 성료
- 수 신 : 언론, 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유관기관 등
- 일 자 : 2026. 10. 29. (목)
- 분 량 : 총 3매(붙임 포함)
- 담 당 :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수미(070-4128-0316)
- 연락처 : TEL: 02-2697-0420, FAX: 02-2652-0421, E-mail: ypcil@ypcil.org
- 주 소 :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121, 3층(신월동, 신협빌딩)

보 도 자 료

써 보니 알겠네, 유니버설디자인… 사람중심IL센터 '찐 편한 디자인?' 캠페인 성료

- 오프너·밀폐용기·멀티탭·텀블러 직접 써 본 시민 150여 명 "편리함 실감" -
- 양천시민사회연대 페스타와 연계, 지역 내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 확산 -

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(소장 이상희, 이하 '사람중심IL센터')는 지난 10월 24일(토) 11시부터 16시까지 유니버설디자인 양천마을만들기 네트워크와 함께 행복한백화점 앞 광장에서 진행한 유니버설디자인(Universal Design, 이하 UD) 캠페인 **「찐 편한 디자인? 유니버설디자인!」**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.

이번 캠페인은 양천시민사회연대 페스타와 연계해 진행됐으며, **1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UD의 의미(연령·성별·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)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**을 가졌다.

사람중심IL센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개인 지원뿐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. 장애인과 고령 주민, 유아차 이용 가족 등 양천구 곳곳에서 불편을 겪는 **모두에게 UD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한 자리**였다.

캠페인 부스에서는 시민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 UD퀴즈와 UD 제품체험이 진행됐다. 참여자들은 퀴즈를 풀며 UD의 의미를 알아보고, 오프너·밀폐용기·멀티탭·텀블러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며 일상생활에서 디자인이 주는 편리함을 경험했다. 또한 추억의 뽑기 이벤트와 UD제품 증정 등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UD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.

사람중심IL센터 이상희 소장은 “이번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UD를 직접 체험하고 그 의미를 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다”라며, “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려면 일상의 환경과 제품부터 달라져야 한다. UD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.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모두가 편리한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아울러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단법인양천마을,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와 협력해 UD의 가치를 함께 알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. **유니버설디자인 양천네트워크**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.

붙임 사진자료 1부. 끝.

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

사진 자료



부스운영 모습



UD퀴즈



UD제품 체험



UD제품 체험



양시연페스타 진행모습



단체사진